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8. 3. 12.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물류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백현식, 사무관 백병성 • ☎ (044) 201-3993, 3996	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1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3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생활물류 새싹기업, 신기술 접목한 ‘스마트 일자리’ 로 키운다 예비창업자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투자 지원 등 적극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생활물류 새싹기업(스타트업, Startup)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  -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하여 세탁물,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
    - 최근에는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.
  -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,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하였고,
    - 지난 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, 투자금액은 639억 원 (금액공개 8건)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 생활물류 스타트업 투자 유치현황('17) >

구분	투자유치금액 (억 원, 금액공개만 포함)	투자유치(건수)		
		계	금액공개	금액비공개
전 체	6,210	247	173	74
물류분야	639	13	8	5
(비중,%)	10.3	5.3	4.6	6.8

자료: 한국교통연구원

- 올해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.
- 우선 3월부터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, 상담·육성 등을 지원하고,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협의회\*를 통해 사업홍보(IR) 등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- \* 유망 생활물류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, 벤처캐피탈, 창업지원기관 등으로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
- 또한, '국제물류산업전'과 '물류산업 취업박람회'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, 구직자와의 일자리 매칭 지원 등 청년의 일자리 제공도 추진한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방소재 창업지원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, 새로운 창업기업도 발굴하는 등 물류혁신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“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활동을 통해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(☎ 044-201-39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